

# 광주·전남 직장인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 67만2000원

지난해 전국 평균은 68만4000원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 4024만원  
광주·전남은 3737만원에 머물러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17만명

광주·전남지역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평균 67만2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지만, 광주·전남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737만원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4000원으로 전년(63만6000원)보다 4만8000원(7.5%) 증가했다.

또 총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광주·전남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총 411억82800만원으로 60만4232명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67만2000원을 환급받은 셈으로, 전년(64만3500원)보다 2만8500원(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는 근로자 25만6532명에 1556억6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돼 1인당 평균 60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전년 58만3000원에 비해 2만4000원(4.1%)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34만7700명에게 2561억60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1인당 평균 73만7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평균 환급액이 70만4000원이라는 점에서 3만3000원(4.7%)이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지난해 전국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는 4.1% 증가한 3740만원, 전남은 4.0% 오른 3734만원이었다. 광주·전남의 평균 급여는 3737만원이다.

이는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세종(4720만원)과 1000만원 상당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서울(4657만원)과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와도 차이가 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국 17만9000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서울이 3억94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2억2800만원, 1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전국 3억4700만원이었는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2억3200만원, 1억2600만원이었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12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다"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지역신보 보증 행정서류

### 공공마이데이터로 간편 제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2일 지역신보보증재단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고와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공공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최대 34종의 행정 서류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로 수집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신보 이용 고객은 별도의 행정 서류 없이 '신용보증 묶음정보 제공요구서'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행정서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명세서와 행정안전부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원부 등이다.

고객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검토 및 입력 절차가 대폭 축소돼 보증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은 행안부와 신보중앙회가 체결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올해는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범 서비스가 지역신보에 순차 적용된다.

지역신보 비대면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비대면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성과공유회

### 16일 동구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글로벌게임센터가 올해 79개 지역기업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있는 광주글로벌게임센터는 올해 79개(중복 제외 21개) 기업을 지원했다.

기업 지원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는 1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올해 총 매출액은 81억원이다.

또 블랙펀트, 맨인블록 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의 창업을 도왔다. 센터는 페퍼스톤즈와 ㈜마가게임즈 등 게임 기업을 광주로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광주글로벌게임센터는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게임 개발자들의 교류망을 넓히기 위해 오는 16일 광주시 동구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2022년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성과공유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디 게임 체험과 기업 성과물 소개, 게임 산업 전문가 특강(네시이십삼분 권혁우 이사·엔젤게임즈 박지훈 대표) 등이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3.02(-16.02)
↓ 코스닥	715.22(-4.27)
↓ 금리(국고채 3년)	3.623(-0.034)
↑ 환율(USD)	1307.20(+5.90)

### 전남신용보증재단 담양 창평시장 화재 피해상인 긴급자금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12일부터 담양 창평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현장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12일 전남신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화재로 인해 담양 창평전통시장 내 일부 점포가 소실됐으며, 이번 화재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재해자금 시행에 나섰다.

재해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담양군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보증 한도는 재해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장 5년간 2%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하다.

또 전남신보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을 위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현장금융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상인은 재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인을 위해 신속한 자금지원 및 현장금융지원단 운영 등 총력을 다해 창평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복고 열풍 타고 어그 부츠 다시 인기**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이달 말까지 5층에서 임시 운영하는 호주 양털 신발 브랜드 '어그' 매장서 부츠와 슬리퍼 등 천연 털신을 선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 유행하던 이 신발 제품은 복고 열풍을 타고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활기 되찾은 화물 운송...광주·전남 산업현장 속속 정상화

###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3일째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지 3일째를 맞은 12일 광주·전남지역 산업 현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12일 광주전남레미콘협회등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레미콘 출하량은 평상시 수준인 2만 8000t 수준으로 돌아왔다.

지역 레미콘업체 90% 이상이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는 게 업계 측의 분석이다. 다만 파업 기간 납품이 밀려있던 탓에 모든 건설현장에 정상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기까지는 당분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외에도 철근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던 광주·전남 40여 건설현장 역시 레미콘과 철근 등 자재 공급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도 완성차를 개별 운송(로드 타슝)해오던 것을 멈추고, 이날부터 카캐리어를 동원한 정상적인 타슝을 시작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평시처럼 카캐리어 108대가 정상적으로 타슝에 나서는데 중이다.

제품 적치 공간 부족으로 70% 감산에 들어갔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도 이날부터 100%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파업 철회 전인 지난 6일부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한 광양항은 이미 화물 운송이 정상화된 상태다. 이날 광양항은 장지율은 67%로 평시(61%)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화물 기사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평상시의 절반 이상으로 물류가 회복됐다.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업계도 빠르게 회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수목장\*자연장 전문

## 수목장\*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